"살려 달라" "다 죽게 생겼다"…그날 긴박한 신고 87건

첫 신고 이후 '압사' 등 언급 신고 전화 폭주
소방대 현장 도착 때까지 신고만 49건 달해
불만 토로 신고자 "군부대 투입해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당일 119 첫 신고 이후 10분 사이 1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살려달라"는 긴박한 외침과 비명 등을 포함한 신고 전화가 87건에 달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날 오전 0시56분까지 100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무응답 등을 제외하면 87건이다.

소방청은 첫 신고를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으로 보고 있다. 당시 신고자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다.

첫 신고인 오후 10시15분터 10분 사이 압사 등 단어와 함께 당시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13건 쏟아졌다. 10시18분에는 "죽을 것 같다. 빨리 좀 와달라"고 했고, 오후 10시20분에도 "사람 몇 명이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다"며 "10명 정도가 깔린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는 비명도 다수 녹취됐다. 오후 10시22분 신고자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 엄청 많이 깔렸다"는 신고가, 오후 10시23분에는 "살려달라"는 비명만 접수됐다.

현장에 첫 소방대가 도착했던 시간으로 알려진 오후 10시42분까지 접수된 신고는 49건에 달했다. 당시 출동대는 오후 10시18분 출발했지만, 인파가 많아 현장 도착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9 신고 전화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후 11시 신고자는 "사람이 지금 몇만명인데 고작 지금 10명 와가지고"라고 말했다. 접수자는 "지금 수십대가 나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오후 11시13분 신고자는 자신을 오후 10시17분에 전화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뒤 "군부대를 투입해도 모자란다고 경찰이고, 소방관이고 다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다 심폐소생술하고 있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접수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구조대랑 여러명이 출동했다", "차는 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 말을 반복했다. 오후 10시41분에는 "거기 소방신고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조치가 안 된다"며 "호흡이 괜찮으면 지켜봐 달라"고만 이야기했다.

이어진 신고 전화에서도 "가용인력이 거기 전부 출동했다", "계속 보내고 있다", "서울에 있는 전 구조대가 그쪽으로 출동해 있다" 등 답이 이어졌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신고 전화도 있었다. 오후 11시6분 신고자는 "용산경찰서 상황실인데 신고 들어와서 알겠지만 사람들 의식이 없고 그런 상황이다. 혹시 구급차 더 지원 가능한가"라며 "서너대 정도는 더 필요한 거 같다"고 전했다.

서선옥 기자

용산구, 이태원사고 재난 심리지원 카페 운영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인근 한 카페에서 이태원사고 재난 심리지원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 도심 한복판, 외국인들 새벽 패싸움…경찰 수사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동구 광산동의 술집 앞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0여명이 서로 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평소 외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을 만류하던 미국인도 휘말려 폭행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 모두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미국인을 상대로 패싸움을 벌인 무리의 신원을 파악, 행방을 쫓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 성추행 혐의 등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32)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1심은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1명과 버닝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김씨) 측은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과의 관계에 비춰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대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당연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24일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의 당시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다.

김재환 기자